

조선반 학습 계획

1 월 5 일

교재 : 한국어 6-1

교육 목표: 학습 활동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네 영역을
골고루 사용하여 한국어 의사 소통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교시	수업 내용	교재 및 자료
1 교시 9:30~10:20	종합평가 문제를 함께 풀고 알아보기 듣기와 말하기도 준비하도록 한다 교재에서 나온 것을 복습하도록 한다	한국어 6-1
2 교시 10:20~11:00	역사 골든벨 준비로 역사문제를 나누어 주고 연습하고 겨울 방학동안 연습한 것을 맞춰본다	시험 문제지
3 교시 11:20~12:00	받아쓰기 시험과 종합평가 복습과 역사골든 벨 연습으로 정리한다	역사 자료집
4 교시 12:00~12:40	서예	
숙제 및 알림	일기 또는 독후감 1 장 새로 나온 단어 5 번 써오기 역사 골든벨 예상 문제 풀고 이해하기 종합평가 시험 준비하기 (배운 것을 더 잘 알도록 복습하기)	

조선반에서는 매주 새로배운 단어써오기에서 받아쓰기를 합니다

담임 : 강승연 shuen98@ hotmail.com

새로 배우는 어휘

배출되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연교차가 심하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적 위치가 어렵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훈민정음

국왕의 자문 기관

조선의 성리학

명량대첩

한산도 대첩

사육신

03

사람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강화

1 사람의 등장과 사회의 발생



▲ 조광조

조광조가 아뢰기를, “나라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매우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꼭 과거 시험에만 국한하여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를 본받아 현량과를 실시하여 덕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인재를 찾으십시오.”

- “중종실록”

조광조가 천거하려고 한 인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학습목표 | • 사람 세력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람과 훈구 사이의 갈등으로 사회가 발생하였음을 파악한다.

훈구 세력이 형성되다

문종이 일찍 죽고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김종서 등 재상과 집현전 출신의 관료들이 단종을 대신하여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에 수양 대군이 왕권의 약화를 우려하여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계유정난).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그를 도운 공신들이 권력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한다. 한명회, 신숙주 등 훈구 세력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사육신 등을 몰아내고 세력 기반을 더욱 넓혔다.

이들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권력을 집중해 나갔다. 공신들은 높은 관직을 독차지하고 국가에서 지급된 토지와 노비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며 정치를 주도하였다.



도움 글

사육신과 생육신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성삼문, 박팽년 등은 한명회, 신숙주, 권람 등 훈구 세력이 정권을 독점하며 국정을 자기를 마음대로 끌고 가자 이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성삼문 등은 1456년(세조 2)에 단종 복위를 내세우며 거사를 계획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이개 등이 사형을 당하고,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은 관직을 버리거나 아예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 은둔 생활을 하였다.



▲ 사육신 묘(서울 동작)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다

사림은 조선의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썼던 길재 등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지방의 중소 지주로서 향촌 자치 및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특히 이들은 향촌 사회에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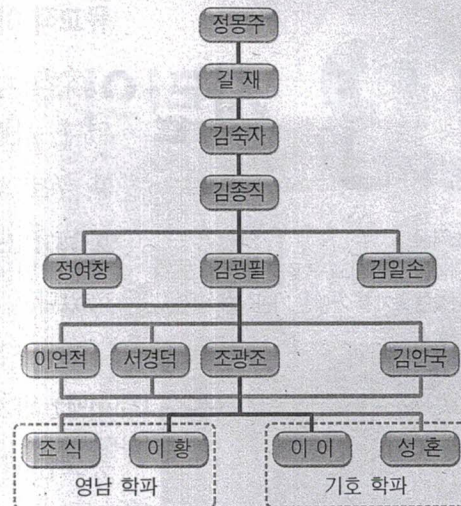
사림은 세조 때 김종직을 시작으로 성종 때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성종도 훈구 세력의 횡포를 막고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사림을 적극 등용하였다. 사림 세력은 주로 3사 등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였다. 이로써 중앙 정계는 사림과 훈구가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다.

사화가 발생하다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유교적 정치 이념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였다. 연산군은 연관직에 있던 사림 세력이 자신을 비판하자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런 가운데 훈구 세력은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 세력을 공격하였다. 이때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무오사화). 그 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처벌하였다(갑자사화).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한글 투서가 잇따르자 성균관을 폐쇄하고, 한글 사용을 금지하였다. 결국 훈구 세력 중 일부가 정변을 일으켜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을 왕위에 앉혔다(중종반정).



▲ 사림의 계보

조의제문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라는 뜻으로서, 중국 초의 항우가 어린 의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실을 비판하였다. 훈구 세력은 이 글이 수양 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을 비판한 글이라 주장하며 사림 세력을 공격하였다.



예림 서원과 김종직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예림 서원은 1567년 김종직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김종직은 길재의 제자였던 김숙자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직접 유학 교육을 받았다. 그는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를 키워 내 사림 세력을 이끌었으며, 사람들도 모두 김종직의 제자임을 자처하였다. 그러나 김종직은 무오사화 때 반역죄로 몰려 *부관참시를 당하였고, 그의 글들은 대부분 압수되어 소각되었다.

*부관참시: 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로서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 김종직을 기리고자 세운 예림 서원

소격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도교 의식인 초제를 거행한 기관이다.



▲ 조광조 추모비(전남 화순)

유교적 이상 정치를 펼치다

중종은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을 등용하여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사림들은 조광조가 건의한 현량과를 통하여 대거 중앙 관직에 등용된 후 주로 3사의 언관직에 진출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광조는 경연을 활성화하고 소격서를 폐지하였으며, 향약을 실시하고 “소학”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였다.

조광조는 중종반정에 참여한 일부 훈구 세력이 지나치게 공을 인정받았으며 그 관직과 포상을 빼앗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훈구 세력은 조광조 일파가 중요한 관직을 독차지하고 왕을 속이고 있다며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급진적인 개혁과 지나친 도덕 정치에 부담을 느낀 중종은 결국 조광조를 처형하고 그를 따르던 세력을 몰아냈다(기묘사화).

향촌에서 재기를 꿈꾸다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이 일찍 죽자, 나이 어린 명종이 즉위하였다. 이때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외척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사림이 또다시 희생되었다(을사사화).

사림은 연이은 사화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향촌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몰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주자가례”, “소학” 등 성리학적 실천 윤리서를 보급하면서 향촌 사회를 유교적으로 재편하였다. 그리하여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림은 서서히 중앙 정계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탐구 활동

조광조의 도학 정치

자료 1

무릇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이 뜻을 알고 백성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잘 다스리는 방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암집”

자료 2

언로가 통하면 나라가 평안하게 다스려지며, 막히면 어지러워지고 망합니다. 임금이 언로를 넓히기에 힘써 위로 3정승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진실된 말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간관을 두어 그 일을 맡게 하는 것이니, 그 말이 혹시 지나치더라도 마음을 비워 놓고 너그럽이 받아들여야 함은 혹시 언로가 막힐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 “중종실록”

과제 1 자료 2를 바탕으로 조광조가 중시한 중앙 관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자.

과제 2 자료 1, 2를 토대로 조광조가 이루고자 한 이상 정치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2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

잘못된 행동의 사례로 100여 가지를 들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 부모를 보고도 내리지 않은 자, 부모의 상을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술을 마신 자, 상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바깥에서 상전을 욕한 자, 하인으로서 양반을 보고도 절하지 않은 자 등이 있다.

- "해주향약"

향약에서 삼강오륜과 같은 윤리를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목표 | • 서원이 성리학 확산에 이바지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 향약이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서원이 세워지다

서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선비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리학을 연구하며 그 지방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서원을 통해 자신들의 학통을 이어 갔으며,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주세붕은 풍기 군수로 재직할 때 고려의 유학자 안향의 제사를 지내고자 서원을 설립하였다. 그 후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서원을 설립하였다.

조선 정부는 서원이 학문 연구와 교육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인정하고 서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갔다. 서원은 사람이 정계의 주도권을 갖게 된 선조 이후 급격히 늘어났으며, 지방 문화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서원 건축

16세기에는 서원 건축이 활발하였다. 서원은 학문 연구에 알맞은 환경을 고려하여 산과 하천 등 자연의 빼어난 경관과 조화를 이룬 곳에 지어졌다.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경주의 옥산 서원과 안동의 도산 서원이 있다.

자료 돌보기



최초의 사액 서원, 소수 서원

풍기 군수 이황이 삼가 글을 올립니다. 이 고을에 백운동 서원이 있는데, 천군수 주세붕이 창건하였습니다. 이 고을은 문성공 안향이 살던 곳입니다. 묘를 두어 안향을 봉향하며, 유생들이 노닐고 강독하는 장소로 삼았는데, 수많은 서적을 사서 간직해 두었습니다. 주세붕의 창건이 비록 위대하다 하더라도 임금의 명령을 거치지 않고 국가 문서에 실리지 아니하면 한 나라의 본받을 만한 제도가 되지 못하여 영구히 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 "퇴계전서"

백운동 서원은 명종 때 풍기 군수 이황의 건의로 국왕으로부터 '소수 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았다. '소수'는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는 뜻이다.

국왕으로부터 현판을 받은 서원은 사액 서원이라 하였다. 사액 서원은 국가에서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급받았다.



▲ 소수 서원 강학당과 현판

2018-2019 학년도 가을학기 '옛날로 떠나는 퀴즈 역사 여행' 추가 문제

1. 고려의 멸망 배경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ㄱ. 홍건적의 잦은 침입으로 백성의 생활이 힘들었다.

ㄴ. 욕심 많은 관리들의 괴롭힘으로 일반 백성의 생활이 힘들었다.

ㄷ. 왜적의 침입이 잦아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었다.

ㄹ. 왕의 힘이 강해져 왕이 귀족들을 견제하며 관리하였다.

답: ㄹ

2. 고려 말, 명나라와 전쟁(요동정벌)을 하자는 최영 장군에 반하여, 이성계는 명나라와 전쟁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전쟁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중 이성계가 주장한 근거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ㄱ.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ㄴ. 농사철이라 군사를 모으면 안 된다.

ㄷ. 요동을 정벌하러 군대를 보내는 사이 왜구(일본)이 쳐들어 올 수 있다.

ㄹ. 명나라는 우리의 형제의 나라이므로 전쟁을 할 수 없다.

답: ㄹ

● 다음의 두 시를 잘 듣고 답하세요.

<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령철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 같이 얹혀 백년만년 누리고저

<나>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3.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새 나라를 만들고자,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 지은 시를 고르고, 그 시의 제목을 쓰세요.

답: <가>, 하여가

4. 정몽주가 이방원의 제안을 거절하며 고려를 향한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고르고, 그 시의 제목을 쓰세요.

답: <나>, 단심가

5.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유교적인 건국이념 아래 정치, 경제, 외교, 사회체제를 설계하였으며 새 왕국의 왕궁과 수도를 설계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정도전

6.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적합한 이유를 모두 고르세요.

ㄱ. 한강이 있어 교통이 좋고 농사 짓기에 편리하다.

ㄴ. 풍부한 물 자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다.

ㄷ. 주위에 산이 많아 외적을 막기에 좋다.

ㄹ.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가운데 위치하여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답: ㄱ, ㄴ, ㄷ, ㄹ

7. 이 속담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이방원에 화가 난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궁을 떠나 함흥에 머물렀고, 아버지로부터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방원이 아버지를 다시 궁으로 데려오기 위해 차사를 보내 설득하지만 오는 족족 이성계가 죽여 함흥에 간 차사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때부터 어디에 가서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는 사람에게 이 속담을 씁니다. 이 속담은 무엇인가요?

답: 함흥차사

- 다음은 세종대왕 시대에 편찬된 책들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8. '향약 집성방'은 우리 풍토에 적합한 약과 치료 방법을 수집, 종합하여 만든 책이다.

답: O

9. '칠정산'은 원나라와 아라비아의 역법을 참고해 만든 역법서로,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해 냈다.

답: O

10. '농사직설'은 중국의 농사 기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답: X,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농부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은 농사짓는 법을 소개하였다.

11. '삼강행실도'는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유교적인 도덕을 가르치고자 글과 그림으로 만든 책이다.

답: O

12.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 ㄱ.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른데 문자는 중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 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만들어도 불쌍한 백성들은 한자를 알지 못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한다.
- ㄷ. 북쪽의 오랑케들도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
- ㄹ.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

답: ㄷ

13. 조선시대에 8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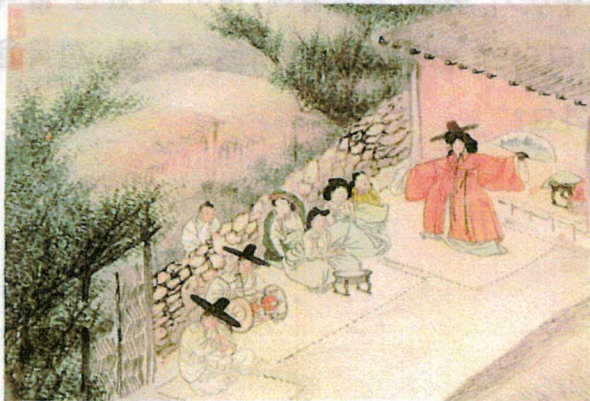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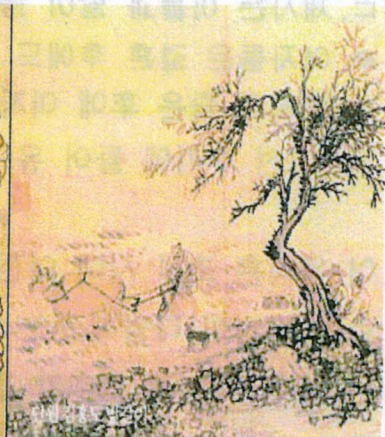
- ㄱ. 강원도
- ㄴ. 경기도
- ㄷ. 평안도
- ㄹ. 한양

14. 오늘 날의 헌법이나 법률과 비슷한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내용에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ㄱ.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ㄴ.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 ㄷ. 노비가 아이를 낳아도 휴가를 받을 수 없다.
- ㄹ. 부모가 많이 아프거나 70세 이상이면 그 아들은 병역(군대)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답: ㄷ, 노비 여성의 출산 휴가는 90일, 필요에 따라 남편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음.

15.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림을 잘 보고 알맞은 신분(양반, 중인, 상민, 천민)을 고르세요.



16. 조선 시대 양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ㄱ. 자신의 땅과 노비를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 ㄴ. 기와로 지붕을 얹은 기와집에서 생활하였다.
- ㄷ. 의학이나 법률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 ㄹ. 남자는 어릴 때부터 글공부를 하여 관리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 ㅁ. 여자는 주로 집안 살림을 챙기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답: ㄷ, 전문직→ 중인

17. 조선 전기, 여자들의 지위에 대해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ㄱ. 조선 전기에는 고려 시대와 비슷한 지위와 권리를 누렸다.
- ㄴ.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분배하였다.
- ㄷ. 제사는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지냈다.
- ㄹ. 여자들은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다.
- ㅁ. 부모가 죽은 후에 여자라고 하여 재산을 물려 받지 못했다.

답: ㅁ, 조선 후기에 들어 유교 질서가 굳어지면서 여자들의 지위가 낮아졌다.

18. 이 음식은 조선 시대 이전부터 만들어 먹었으나 조선 시대에 지역마다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원래 채소나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 먹는 것이었지만, 조선 시대에 고추가 들어 오면서 오늘날과 비슷하게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주로 겨울 전에 많이 저장했다가 채소를 구하기 힘든 겨울철에 많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한국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무엇인가요?

답: 김치